

황금빛 갈대의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야생의 생명을 품은 순천만 치유의 공간으로 초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순천만, 야생의 생명을 품은 치유의 공간'을 주제로, 시민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문화축제로 추진된다. 개막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순천만의 생태와 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탐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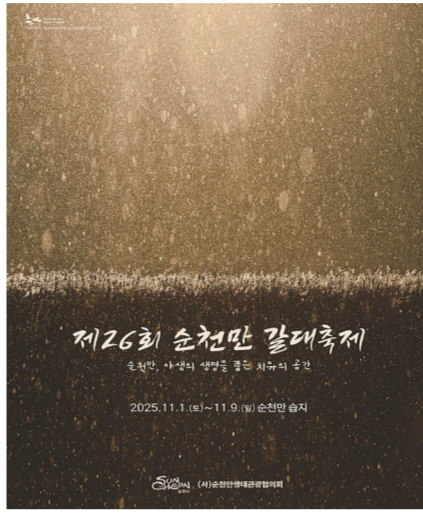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안내하는 △순천만 마을탐방 △흑두루미

관찰 체험 △순천만 소리명상 △새벽 선상 투어 △순천만 별빛 여행 △갈대울타리 소원글 쓰기 △희망농업단지 벼베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시는 축제 기간 중 '블루카본 포럼'과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여,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가 국내 기초자치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이후 열리는 첫 학술행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라며,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자연과 공존하는 순천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한국 최초의 기초자치체로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모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 복원과 보전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



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10월 23일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의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을 위해 축제가 열리는 광양읍 서천면 주행사장 일원에서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건축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반으로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교통·소방·전력·전기·가스·시설 등 분야별로 빈틈없는 점검을 진

광양시,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현장 안전점검 실시

유관기관 분야별 합동점검으로 안전 최우선 확보

행하며 ▲주무대 구조물 ▲무대 주변 전기시설 ▲관람객 밀집구역 ▲우천 시 대비계획 ▲교통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행사 중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상태와 비상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폭죽 및 드론 라이브쇼와 관련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면 일원에서 개최되며, ▲체조댄스 페스티벌 ▲관소리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가을의 향연 공연 ▲동아리 페스티벌 ▲청년가족 노래자랑 ▲시립국악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문화예술회관 교동지구 건립 청신호 켜졌다 2028년 건립 목표로 후속 절차 본격화

영암군민의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영암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

이는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승인하는 행안부의 결정이다. 중앙정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영암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후속 건립 절차를 진행해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교동지구 내 8,235㎡ 부지에 연면적 4,0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주민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한다.

2024년부터 영암군은 영암읍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영암군에는 500석 이상 규모의 전문 문화예술공연장이 없어 수

준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할 수 없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과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이런 영암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계획안을 세 차례 행안부에 제출하고 규모 등을 조정하며 정부를 설득해 왔다.

영암의 문화예술 시각지대를 없애고 군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영암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번 중앙재정 투자심사가 통과됐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문화예술회관은 영암군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행안부 중앙재정 투자심사 통과를 환영하며, 내실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영암군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좋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보성군-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3일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사)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안현섭)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태양)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귀농귀촌인의 열정과 소망을 공유하며,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귀농·귀촌 및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공동 논의, ▲지역 농산물 상호 교차 판매 및 공동 마케팅, ▲주요 행사 상호 방문 등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흥 통일열차, 평화의 꿈 안고 강원도 철원으로 출발"

장흥군민 352명을 태운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가 24일 강원도 철원을 향해 힘찬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통일열차는 지난 9월 참가자 모집과 동시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새벽 4시 장흥을 출발해 광주송정역에서 출정식 행사에 참석한 뒤 열차에 탑승해 동두천역까지 이동했다.

통일열차 내에서는 이동시간을 활용해 통일 인문학 강연과 문화 공연이 운영되어 호응을 받았다. 한 참가자는 "통일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군 제공



진도군, '2025 안전한국훈련' 실시

진도군은 지난 10월 21일에 진도공설운동장에서 지역 기관과 단체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산불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 훈련이며,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민, 관, 군, 경 14개 실무반의 합동으로 재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진도군은 산불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방서, 경찰서, 육군8539부대 제1대대, 보건소, 한국전력 진도지사 등 관계 기관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불 대응 지침에 따라 초기 진화, 인명 대피, 응급의료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천처럼 점검해 민, 관, 군, 경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함을 확인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